

공급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성명·보도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논평]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

작성일 2015.11.19 작성자 대변인 Views 2603

[논평] 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 소통수단이 아닌 흥기가 된 김도읍 일베 국회의원의 막말 -

인륜과 양심을 저버린 새누리당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역사교과서 주체사상 교육 발언에서부터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일련의 막말 난장을 보노라면 저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정부여당과 극우언론은 경찰의 지나친 집회 금지와 살인물대포에 분노한 민심을 돌리고자 혈안이다.

그들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장면만을 연일 부각시키며, 심지어 프랑스테러와도 연결시켜 13만 민중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갔다. 이 악의적 여론조작만으로도 허를 내두를 지경인데,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가 쓰러진 그를 덮쳐 폭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뱉는다.

그 막말 주인공 김도읍 국회의원의 시력과 판단력이 의심될 정도인데,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미 쓰러진 농민에게 계속 고압물대포를 난사했다. 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쏘고, 구급차에도 물대포를 퍼붓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새누리당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러곤 일베의 막말을 베껴대며 자작극으로 돌아가는 파렴치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는다.

과연 그들과 대화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책임자 처벌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귀에는 들리는가? 양심과 정의마저 물대포에 쓸려가 버린 11월, 저들의 말은 소통의 수단이 아닌 흥기일 뿐이다. 김도읍은 국회를 떠나라! 백남기 농민 앞에 당장 무릎 꿇어 사죄하라!

2015.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02-2670-9100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